

전염병에 대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적
이해: 안드레아스 리베투스(1572-1651)의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과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를 중심으로

유정모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역사신학)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안드레아스 리베투스(1572-1651)의 저술에 나타난 전염병에 관한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교부와 중세 신학자 및 종교개혁가들의 영향 속에서 리베투스는 전염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대응은 겸손과 회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 시대와는 달리 근대의학의 영향 속에서 전염병을 자연적인 원인을 가진 대상으로 파악하며 흑사병의 자연과학적 원인과 치유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동시에 보여준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논의에서 리베투스는 일반인과 달리 공적 소명이 있는 위정자와 목회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위치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한다. 인간 종말의 때가 불변한 것인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리베투스의 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인간의 자유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간 공로로 돌리는 펠라기우스파 사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제이원인의 우발성 및 인간의 자유 모두를 보장하는 중도적이고 균형 있는 신학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리베투스의 전염병 사상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교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키워드: 안드레아스 리베투스, 개혁파 정통주의, 흑사병, 도피, 섭리, 의학

논문투고일 2024.01.08. / 심사완료일 2024.02.28. / 게재확정일 2024.03.05.

I. 서론

중세후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강한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로 전 유럽을 혼돈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흑사병의 재앙은 그 후로도 사라지지 않고 18세기 초까지 주기적으로 창궐하며 많은 유럽인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특별히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도 흑사병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다. 가령, 1665년 영국 런던에서 재유행한 흑사병은 불과 2년 동안 런던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근 유럽 국가에까지 퍼져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17세기 유럽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전염병의 재난을 마주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와 사회를 선도해야 할 도전과 책임을 만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드레아스 리베투스(Andreas Rivetus, 1572-1651)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한 대표적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프랑스 위그노 출신의 리베투스는 도르트 공의회(Synod of Dort, 1618-1619)에 프랑스 대표로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개혁신학의 중심지였던 화란 라이든(Leiden) 대학의 신학 교수로 사역하면서 개혁파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주요 문서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순수신학통론』(*Synopsis Purioris Theologiae*, 1625)을 네 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으로 집필하는 등 당대의 유럽에서 매우 영향력 있게 활동했고 국제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였다.¹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화란도 17세기 초반 흑사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7085).

1 안드레아스 리베투스는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생 마생(St. Maixent)의 어느 휴그노 가정에서 1572년 6월 22일에 태어났다. 프랑스의 라 로셸(La Rochelle)과 올테(Orthez)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그는 프랑스 투아르(Thouars)에 있는 개혁교회의 목회자로 25년을 사역한다. 투아르에서 사역 하면서 그는 1617년 비트레 공의회(the Synod of Vitre)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개혁교회의 지도자로 활발하게 사역하였고 『성스러운 맹론가들의 견본』(*Critici sacri specimen*)과 같은 여러 탁월한 신학 작품들을 저술한다. 1620년 리베투스는 라이든 대학에서 신학교수로 임명받고 구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는 이곳에서 주석가, 신학자, 논쟁가 그리고 목회적 신학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1646년에 그는 라이든 대학을 떠나 브레다의 오렌지 대학(Orange College of Breda)의 학장을

병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흑사병이 발병하자 암스테르담의 인구 15%가 흑사병으로 죽었고 바로 옆 대도시인 할렘에서는 1636년 한 해 동안만 주민의 21% 이상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그가 교수로 활동하던 라이든 지역도 흑사병의 재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602년에서 1603년까지 이미 한차례의 흑사병 유행을 경험했던 라이든은 1635년에 다시 한번 흑사병의 재난을 겪게 된다.² 리베투스는 이러한 흑사병의 창궐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하면서 흑사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와 교회를 돕고자 1638년에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과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s*라는 세 개의 저술들을 하나로 엮어 합본 형태의 책으로 출간한다.³

이 책은 전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개혁파 정통주의의 입장에서 설명

말게 되고 1651년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 머문다. 리베투스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Eugène and Emile Haag, *La France Protestante*, 10 vols. in 8 (Paris: Joël Chérbuliez, 1846-1859), 8:444-49;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56 vols. (Leipzig: Duncker & Humblot, 1875-1912), 28:707-08; G. P. van Itterzon, "Rivet (Rivetius) André (Andreas)" In *Biografisch lexicon voor de geschiedenis van het Nederlands protestantisme*, 6 vols. (Kampen: Kok, 1978-2006), 2:375-78. 리베투스는 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설교자와 정치가로서도 활발하게 사역하며 큰 명성을 떨쳤다. 당시 유럽에서 리베투스의 영향력 및 그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Willem J. van Asselt, "Andreas Rivetus(1572-1651): International Theologian and Diplomat" in Martin I. Klauber ed.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251-66. Cf.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아치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1851)는 리베투스의 탁월한 업적을 칭송하며 그가 17세기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재"였다고 평가한다. Archibald Alexander, *Thoughts on Religious Experienc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7), 197.

2 A. C. Duker, *Gisbertus Voetius* (Leiden: Brill, 1897), 2:214.

3 Andreas Rivetus,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 Meditatio in Psal. XCI.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et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s?* (ex Office J. Biesii typ., 1638). 이 중 *Epistolae duae*는 전염병에 대한 네 명의 개혁파 신학자들(테오도르 베자, 안드레아스 리베투스, 히스베르트 푸치우스, 요하네스 호른베이크)의 글을 모아서 발간된 다음의 책에도 포함되었다. *Variorum tractatus Theologici de Peste* (Leiden: Johannes Elsevirius, 1655). Cf. 리베투스 저서의 원제는 한국어로 각각 『모든 재앙과 악에 대한 해독제: 시편 91편에 대한 묵상』 그리고 『두 편의 편지, 하나는 역병의 전염과 도망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삶의 기한이 고정적인지 또는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라고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번역 없이 라틴어 원문을 인용하여 저서를 표기하도록 하겠다.

하려는 시도로서 흑사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며, 평신도와 목회자는 전염병의 위기에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당시 불거졌던 논쟁의 이슈들인 역병이 유행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위기의 때에 국가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때는 정해져 있는지와 같은 민감한 신학적 주제들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책의 출간을 크게 환영했다. 특히, 흑사병에 관한 최신 의학 및 자연과학 정보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이 작품은 화란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널리 읽히며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던 많은 사람에게 전염병의 극복을 위한 여러 실마리를 제공하며 큰 도움을 주었다.⁴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요하네스 호른베이크(Johannes Hoornbeek, 1617-1666)와 같은 당대와 후대의 주요 학자들이 전염병과 관련된 저술을 집필할 때에 권위있는 선행연구로 자주 인용되었다. 하지만 리베투스의 *Antidotum Contra Pestem*과 *Epistolae duae*는 근대 유럽에 미친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외의 학계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물론 리베투스와 그의 저술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주요 연구가 출간되었다. 하나는 1930년에 출간된 혼더스(H. J. Honders)의 단행본이다.⁵ 이 책은 리베투스에 대한 최초의 단독 연구이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리베투스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가 참여했던 신학 논쟁을 개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본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4페이지 분량만을 할애하여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혼더스의 책은 전염병 관련된 리베투스의 사상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소개하지 않았다는

4 라이든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였던 아돌푸스 포르스터우스(Adolphus Vorstius, 1597-1663)가 흑사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베자의 *De Pestis Contagio & Fuga Dissertatio*를 1636년에 정식 출판할 때에 리베투스의 *Epistolae duae*와 함께 묶어서 출간했다는 것은 그의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5 H. J. Honders, *Andreas Rivetus: Als Invloedrijck Gereformeerd Theoloog in Holland's Bloeitijd* (Leiden: Martinus Nijhoff, 1930).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판 아셀트(Willem J. van Asselt)가 저술한 논문도 비슷한 성격으로 리베투스의 생애와 사상을 개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전염병과 관련된 그의 사역과 저술에 대해서는 혼터스의 경우와 같이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⁶ 리베투스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판 옵스탈(A. G. van Opstal)이 저술한 단행본으로 네덜란드 헤이그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 미쳤던 리베투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⁷ 하지만 그의 저술은 전염병 관련해서 그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처럼 리베투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빈약한 현실이고 그의 전염병 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리베투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실 리베투스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이들의 사상을 계승한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이 어떻게 전염병 대처했으며 어떠한 저술들을 남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이들의 사역과 저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초기 근대시대에 유행했던 전염병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소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당시 교회와 신학자들의 노력에는 대체로 무관심하였다. 특히,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 정교일치의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염병 대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근대 자연과학 및 의학과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도 가교역할을 했던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역할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염병을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한계점을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전염병은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학적, 신학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관점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종교와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배제한 채 주로 근대의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만 논의를

6 van Asselt, "Andreas Rivetus (1572-1651)," 264-66.

7 A. G. van Opstal, *André Rivet, een invloedrijk Hugenoot aan het hof van Frederik Hendrik* (Harderwijk: Drukkerij Flevo, 1938).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로소 역사 가운데 어떤 역병의 창궐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가에 관해 학계에서 큰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몇 논문들을 제외하곤 국외의 학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전문적인 연구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대교회와 전염병, 한국선교와 전염병과 같은 포괄적 주제를 간략히 다루거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그리고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와 같은 소수의 인물에 관한 개략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특히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전염병에 관해 여러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와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에 대한 논문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⁸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염병에 대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드레아스 리베투스의 *Antidotum Contra Pestem*과 *Epistolae duae*를 그가 처했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이들 작품에 나타난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유책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로 초래된 다양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리베투스의 논의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당대에 큰 논쟁의 주제였던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리스도인이 감염지역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도 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때는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리베투스의 신학적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 주제들에 대한 그의 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8 양신혜, 『베자: 교회를 위한 길 위에 서다』(서울: 익투스, 2020); 권경철, “푸치우스의 ‘흑사병에 대한 영적 해독제,’” 『역사신학논총』 제38권 (2021), 78-100.

II. 본론

1.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리베투스의 사상

리베투스는 전염병의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리베투스는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설명한다.⁹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역병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리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나는 이 전염병이 공의로운 이유로 특별히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25절, 신명기 28장 21절, 민수기 14장 11~12절, 예레미야 24장 10절, 에스겔 6장 12절)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허박국 3장 3절과 5절을 통해 ‘역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전염병이 그의 발을 앞서며, 정오에 거룩한 산 비란 (Paranu)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⁰

리베투스는 역사적으로 심지어 이방인들도 전염병은 분노한 신이 자신들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애썼다고 주장한다. 가령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오로시우스 (Paulus Orosius, 385-420)가 『이교도에 대항하여』(*Adversus paganos*)의 3권 4장에 기록하였듯이 신의 노함을 풀기 위해 “극장 공연”(ludos scenicos)을 행했었다.¹¹ 같은 책 4권 5장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빌레”(Sibyls)의 예언서들을 철저하게 읽기도 하였다.¹²

⁹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4.

¹⁰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6

¹¹ Cf. Paulus Orosius, *Adversus paganos historiarum liberi septem* (Mainz: Petrus Cholinus, 1615), 138-39.

¹²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6-47. Cf. 시빌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던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여성 예언자들을 가리킨다. Orosius, *Adversus paganos*, 228-30.

하지만 리베투스스는 제이원인을 무시한 채 전염병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초자연적 원인과 더불어 흑사병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자연적 원인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리베투스스는 먼저 더러운 집이나 막힌 하수구가 때때로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태양이 역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태양의 열기가 과도하게 뜨거울 경우 그것은 지구로부터 병든 증기를 끌어내게 되고, 이러한 기체의 변화는 인체를 피로하고 괴롭게 만들어 결국 사람들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리베투스스는 특별히 두 권의 책 내용을 언급한다. 첫째는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 n.d.)의 『역사의 도서관』(*Bibliotheca historica*) 12권이다. 이 책에서 시쿨루스는 전염병의 원인을 오염되어 악취로 가득 찬 공기를 호흡하는 것에서 찾는다. 정제된 물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 가열될 때 극도로 습기가 많고 악성인 유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방목지와 여름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고 지중해 계절풍(북서 무역풍)에 의해서 냉각되지 않으면 인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두 번째로 리베투스스가 언급하는 책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학자였던 마르실리오 피키노(Marsilio Ficino, 1433-1499)가 저술한 『전염병에 대한 해독제』(*Epidemiarum Antidotus*)이다.¹⁵ 리베투스스에 따르면 피키노는 이 책 2장에서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퍼질 때에 공기 중에 있는 전염병의 증기는 특정 사악한 별자리에 의해서 발생하며, 특히 우리의 시각에서 화성이 토성과 만나고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¹⁶

이외에도 리베투스스는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전염병들은 원인이 “바람 및 늪지와 하수구의 악한 증기들”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정도로 “지구의 움직임”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그는 전염병의 원인은

13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1.

1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2.

15 Cf. 이 저술은 중세의 미신적 관점에서 벗어나 분석적이고 개방적인 근대적 접근방법을 통해 흑사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다룸으로써 의학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Marsilio Ficini, *Epidemiarum Antidotus in De vita libri tres* (Paris: Elaias le Preux, 1616).

16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2.

거의 항상 오염된 공기, 즉 “뿌영고 습기가 많으며 안개가 자욱하며 악취 나는 공기”에서 지배적으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에서 전염병이 자주 유행하는 도시와 마을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한다.¹⁷ 요컨대 리베투스에 따르면 사람은 자연적 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제이원인을 통하여 [발생된] 오염된 공기”(per causas secundas aërem inficientes)를 마심으로써 병에 걸리고 공기를 통해 병의 원인이 되는 “독이 전파”된다(pestilens illud virus effundentes).¹⁸ 그는 이에 대해서 모든 의사가 동의한다며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근거를 바탕으로 리베투스는 전염병의 원인을 항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한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든 전염병이 반드시 제이원인의 영향(causarum secundarum influxu)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장소에서는 공기의 자연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위 원인(causae superiores)이나 하위(inferiores) 원인이 이 악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오염(corruptione)이 퍼짐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입니다.²⁰

이처럼 리베투스는 전염병의 원인을 제이원인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제이원인인 오염된 공기에서 찾고자 하였다.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은 다양한 제이원인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독”(virus)을 통해 공기 중에 퍼지게 된다고 이해한 것이다.²¹

리베투스처럼 전염병의 원인을 제이원인뿐만 아니라 제이원인에게서 찾고자 하는 노력은 다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가령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는 다니엘 세네

17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2-53.

18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4.

19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8.

20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5.

21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4.

르투스(Daniel Sennertus, 1572-1637)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칼리거(Julius Caesar Scaliger, 1484-1558) 같은 유럽 최고 의사들의 의학서적들을 두루 참고하여 흑사병의 원인을 이차적이고 자연적 원인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²² 즉, 이들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근대과학과 의학이 발견한 자연적인 제이원인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식의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전염병에 대한 신앙과 철학과 의학을 통합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설명들을 제시한다. 물론 리베투스가 살았던 시대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c. 460 - c. 370 BC)와 갈레노스(Aelius Galenus, 129 - c. 210)에 근거한 고전적인 의학 체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19세기 말에 등장한 ‘세균병인론’(the germ theory of disease)이 발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투스의 자연적 원인성에 관한 관심은 전염병과 관련하여 초자연적 원인에 집착하거나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대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달리 당시 개혁파 정통주의가 근현대 사회로 접어드는 과도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에 당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자연과학 및 의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전염병의 해결책에 대한 리베투스의 사상

그렇다면 리베투스가 제시하는 전염병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는 먼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에서 찾을 수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진정하고 순전한 회개”(serià & sincerà poenitentia)에 있다고 가르친다.²⁴ 그는 다른 치유책을

22 권경철, “푸치우스의 ‘흑사병에 대한 영적 해독제,’” 86-90.

23 의학으로 흑사병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알렉상드르 예르생(Alexandre Emile Jean Yersin, 1863-1943)이 최초로 흑사병 균을 발견한 1894년이었고, 전염의 주요 매개체가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라는 사실은 1897년 폴 루이스 시몽드(Paul-Louis Simond, 1858-1947)에 의해서 밝혀졌다. 박성봉, “불링거와 취리히 흑사병”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175.

찾기 이전에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먼저 이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리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과 도덕에서의 타락에 대한 불만을 단순히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선(emendatione vera)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obsignemus)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읍시다. 통치자들은 범법자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즉, 견잡을 수 없는 불경건을 억제하고 법률과 처벌의 장벽을 가지고 모든 부당함(injustitiam)과 무절제(intemperantiam)를 억압해야 합니다. 백성들은(subjectis)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비하고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전염병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거나 곧 보낼 시련과 징벌이 가지는 용도와 열매를 발견합니다.²⁵

리베투스는 전염병의 창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깊이 회개할 기회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미 교회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리베투스는 초대교회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us, c. 200-258)도 그의 저서 『죽음에 관해서』(*De Mortalitate*)에서 전염병의 치유책으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한다.²⁶

한편 리베투스는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적 노력으로도 전염병을 극복할 것을 권면한다. 이 내용은 특별히 시편 91편에 대한 그의 묵상에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리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라.²⁷ 우리 날수가 적고 고난이 많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라.²⁸ 다른 사람이나

2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5.

25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5-16.

26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6.

27 Rivetus, *Meditatio in Psal. XCI*, 5, 8-9.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라.²⁹ 죽음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죽음을 매우 친숙한 생각으로 만들어놓고, 죽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과정임을 인식하라.³⁰ 이렇게 리벤투스는 회개와 더불어 여러 경건의 노력을 통해 전염병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지만 리벤투스는 흑사병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이원인의 도움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둘 때, 즉, 그의 손이 가했던 재앙을 피하려고 그리고 파멸하는 천사의 공격이 방해를 받거나 완전히 막히도록 자비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이원인의 모든 도움(omnia ex causis secundis)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전염병도 그 기원과 계속된 진행에 있어서 자연적 원인(naturales causas)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확실히 모두에게 명백합니다.³¹

리벤투스는 전염병이 자연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역병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가령 그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벤투스는 의학적 치료가 하나님이 역병 극복을 위해 허락하신 수단이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은 신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다.³² 또 다른 실례로 그는 각종 향을 피워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것도 권면한다. 그런데 리벤투스가 전염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특별히 강조하는 방안은 감염된 장소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²⁸ Rivetus, *Meditatio in Psal. XCI*, 6.

²⁹ Rivetus, *Meditatio in Psal. XCI*, 31.

³⁰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73-75.

³¹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1.

³²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5.

피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도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연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고 언급한다.³³ 하지만 리베투스는 전염병으로부터의 도피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허용되는 방안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³⁴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과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리베투스는 어떤 상황에서는 장소와 공기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짐승에게 부여된 자연적인 자질”로 보았다.³⁵ 이처럼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리베투스의 견해는 역병의 때에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평상시에는 교회의 모임 안에서 성찬을 되도록 자주 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사람들이 성찬을 원하지도 않고 성찬식을 통해 전염병의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베투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성찬 대신에 “성찬에 대한 과거의 기억”(memoriā præteritæ perceptionis sacramenti)과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현재의 말씀”(verbo præsentī)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e cum Christo)를 확증할 것을 권면한다.³⁶

한편 리베투스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정부 관료들은 하수관을 정화하여 고인물들이 흐르게 함으로써 물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가 과도하게 습해지면 불을 사용하여 공기의 습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정자들은 감염된 건물이 철저히 씻겨서 소독될 때까지 새로운 거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³⁷ 그리고 리베투스는 목회자들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33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7.

3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8.

35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8.

36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0-41.

37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3.

위정자는 그들을 위해서 숙박과 함께 모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이외에도 그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 매장 풍습을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네덜란드의 교회에는 죽은 자의 주검을 교회 안에 매장하는 풍습이 유행하고 있었고 리베투스는 이를 통해 폐쇄된 공간에 오염된 증기가 가득해지거나 장례식에 참석한자들이 시체와 불필요하게 접촉하여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³⁹ 따라서 그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건의하여 법률적 조치가 취해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마지막으로 리베투스는 위정자들은 감염자와 접촉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섞이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없이 행동함으로써 흑사병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⁴¹

요컨대 리베투스는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흑사병의 해결을 위해 하수구를 청소하고 감염된 집들을 소독하는 등 정부 관료를 통한 사회적 완화책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참된 회개”에 있음을 강조한다. 리베투스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 역대하 7장 14절, 이사야 28장 15절, 예스겔 28장 23절 등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참된 회개 없이는 “도망, 주의, 건물의 정화, 유향 연기나 파우더로 인한 치료, 불붙은 화약에 의한 치료,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얻어진 다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⁴²

전염병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이상과 같은 리베투스의 사상은 다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저술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이들은 전염병의 해결책으로 무엇보다 신앙적 해결책을 우선순위에 둔다. 베자나 푸치우스 같은 당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

38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8.

39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8-59, 163-65.

40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71. 결론적으로 리베투스는 시체는 될 수 있으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72-73.

41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53-54.

42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7-48.

서 흑사병을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들은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신앙적 해결책을 강조한다. 하지만 리베투스과 유사한 관점 속에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오직 신앙적 노력만으로 흑사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흑사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전 시대의 신학자들과 동의하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흑사병 같은 질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가령 비록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의료수준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의사를 통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의학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 흑사병을 완화하고 치유할 것을 권면한다. 또한, 배자를 비롯한 여러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은 병자를 격리하고 감염지역으로부터의 피신함으로써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것을 매우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⁴³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리베투스처럼 사회적인 해결책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전염병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재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고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그들은 이를 위해 정부 관료가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배자는 기독교 위정자의 의무는 전염병을 양산하거나 확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기독교의 사랑과 자선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회에서 제거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를 잘 돌봐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⁴⁴ 결과적으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흑사병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들은 마술이나 마녀사냥, 수호성인들을 향한 기도, 금욕과 고행과 같은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던 이전 시대의 경향과는 달리 이들이 신앙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방법은 통한 전인적인 대처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⁵

43 Cf. Theodore Beza, *A Learned Treatise of the Plague: Wherein, the Two Questions: Whether the Plague to be infectious or no: and whether, and how farr it may be shunned of Christians, by going aside? are resolved* (London, 1665), 17-19.

44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8.

45 Cf. 1568년과 1571년 사이에 제네바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3천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을 때 제네바의 행정관료들은 마녀 또는 전염병을 퍼뜨린 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150여 명이나 체포하여

3. 전염병 때문에 피신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리베투스의 사상

흑사병이 유행하던 당시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이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⁴⁶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행하여 교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리베투스는 흑사병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다루면서 이 문제도 깊이 논의한다.

먼저 리베투스는 전염병으로부터의 도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근거를 지롤라모 잔키(Girolamo Zanchi, 1516-1590)의 빌립보서 2장 30절의 주석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반박한다.⁴⁷ 먼저 리베투스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사건을 근거로 역병은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순수한 징계이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경험과 여러 이성적 판단에 근거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감염성이 없는 게 아니다. 가령, “나병”(癩病, lepra)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도 한다. “상피병”(象皮病, Elephantiasis)이나 “옴”(疥癬症, scabies)과 같은 피부병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질병을 피하는 것이 율법에서 허용된다면 마찬가지로 흑사병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허용된다.⁴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질병에 걸리게 할 것이고 누구를 보호하실 것인지를 섭리 가운데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에 저항하

심문하고 고문하였고 이들 중 시인하는 자들은 화형에 처했다. 1571년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16명이 전염병을 퍼트리고 마법을 행한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다. Scott Manetsch,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와 활동과 역사』, 신호섭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538.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도 여전히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흑사병의 문제를 대처하는 중세적 경향이 많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46 Cf. Manetsch,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와 활동과 역사』, 541.

47 Jerome Zanchi, *In D. Pauli apostoli Epistolas ad Philippenses, Colossenses, Thessalonicenses et duo priora capita primae epistolae D. Iohannis, Commentarii*, 2nd edition (Neustadt: Wilhel Harnisius, 1601), 222-227.

48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4.

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 또한 옳지 못하다.⁴⁹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제이원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고”(statuere) 제이원인을 통해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베투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처방해 준 약들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감염지역을 피하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기근, 전쟁, 박해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 방법들이 왜 역병의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가?”⁵⁰ 사도행전 27장은 하나님의 작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 사용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⁵¹ 따라서 리베투스는 잔키의 의견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수단(*legitima media*)은 신적 섭리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됩니다(*subordinari*). 마찬가지로 공공선을 위하여 불, 유황 가루, 또는 공기를 정화할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나,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예방약(*prophylactis*)을 사용하거나 양심이 허락하는 한 감염된 지역을 떠나는 것과 같은 실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⁵²

리베투스에 따르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⁵³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charitatem)은 모든 사람이 모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이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아픈 자들을 돌보기 위해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을 돌보는 것도 사랑에 역행하는 행동이다.⁵⁴

⁴⁹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4.

⁵⁰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5.

⁵¹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6-27.

⁵²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7.

⁵³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4.

이렇게 역병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피신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잔키의 견해를 의지해서 반박한 뒤에 리베투스는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을 피해 도망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논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른 신학자들의 논거를 인용한다. 예를 들어 리베투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게오르기우스 손(Georgius Sohn, c. 1552-1589)이 그의 저술인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에 관하여』(*de causis & curatione pestis*)에서 감염지역에서 “빨리 피신하고, 멀리 도망가고, 천천히 돌아오는”(cito, longè, tardè, cede, recede, veni)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한다.⁵⁴ 리베투스는 켄터베리의 대주교였던 게오르그 에봇(George Abbot, 1562-1633)의 『박해와 전염병에서 도망하는 것에 관하여』(*De fuga in persequutione & peste*)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수단도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부지런히 수단을 구해야 하며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한다.⁵⁵ 리베투스는 또한 다양한 향을 피워서 공기 중의 독성을 제거하여 공기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막을 이유가 없고 예방적 차원에서 가장 유익한 방법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루드비흐 라바테르(Ludwig Lavater, 1527-1586)의 역대상 21장 15절의 주석도 인용한다.⁵⁶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리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들 신학자는 모두 신적 섭리나 예정 교리와 관련된 어떠한 점에서도 그들이 [정통신학에서] 벗어났다는 의심이 없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의 자비와 상반되는 되지 않는 이유와 방법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감염된 장소에서 피할 수 있고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도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가르칩니다.⁵⁷

5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7-28.

55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8.

56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0-31.

57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2.

58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4.

하지만 리베투스는 목회자나 공직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녕과 건강에 책임이 있기에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언급한 학자들 모두가 이 견해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⁵⁹ 가령 리베투스에 따르면 게오르그 손은 사회와 교회에서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리고 멀리 떠나서 천천히 돌아오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요한복음 10장 11절과 마태복음 25장 42절에 근거해 역병의 때에도 자신의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⁶⁰ 리베투스는 우르바누스 레기우스 (Urbanus Rhegius, 1489-1541)도 언급하며 그가 『모든 종류의 고난 속에서』(*In omnis generis afflictionibus*)에서 교회나 정치의 영역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위험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과 같은 견해를 펼친다고 설명한다.⁶¹

그러나 리베투스는 위정자와 목회자들이 도시와 교회 안에 머물러 그들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관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부 관료나 목회자들은 아픈 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빚진 자”(debitores)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공동체와 교회 전체를 위해 사명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⁶² 따라서 위정자의 경우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적인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담당자를 지명하여 그를 통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베투스는 목회자의 경우 이 원리는 상황에 따라 좀 더 주의 깊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숫자인데 만약 오직 한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병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자기 회중 전체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은 대리인을 통해서서는 행해질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수의 목회자가

59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4.

60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4.

61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5.

62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6.

있다면 리베투스는 제네바의 모델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बे자가 사역 했던 제네바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자를 따로 선택하였고 나머지 목회자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과 성례 사역을 하거나 전염성이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집단이 돌봄을 받는 동안 다른 집단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였다.⁶³ 따라서 리베투스는 제네바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목회자가 어떻게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네바의 경우와 같이 한 사람이나 몇 명이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무리에서 선별되어서 감염된 사람을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함의 원리가 그들이 환자에게 접근할 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환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아픈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예방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감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직무에 종사하는 한, 위정자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과 함께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목회자들은 교회의 나머지 회중과 비교적 덜 위험한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과 다른 책무들을 손쉽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목회자가 무분별하게 감염 장소를 자주 방문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목회자가 자신들과 함께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⁶⁴

여기서 제시되는 리베투스의 방안들은 환우들을 돌보는 일이 가능한 안전하게 진행됨으로써 환우들을 위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목사를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실례로 하인리히 볼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가 전염병에 걸린 어떤 여인을 심방한 후에 자신도 그 병에 전염되었고 그 결과 그의 온 가족이 감염되어 그의 아내와

63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1-22.

6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7-38.

두 딸이 사망한 경우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는 불링거가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했고 자신의 가족과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공공의 선은 사적인 선보다 앞서고 더 큰 선은 더 적은 선보다 앞선다.”라고 언급한 잔키의 견해를 인용한다.⁶⁵ 리베투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학식이 있는 신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주장임을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칼빈, 잔키, 베자, 요한 게르하르트(Johann Gerhard, 1582-1637), 폴 타르노우(Paul Tarnow, 1562-1633) 등의 주장을 인용한다.⁶⁶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리베투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 의견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회원의 안녕은 제공되어야 하지만 특히 전체 몸의 안녕이 중요하며, 특히 전체 교회가 목사의 사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전체에 오직 한 명의 목사가 있는 경우, 병든 자가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목사를 나머지 회중에게 쓸모없거나 의심스럽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전염의 위험이 없더라도 목사들이 부담 일부를 경감받도록 하고, 다른 계급에서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⁶⁷

요약하면 리베투스에 따르면 국가나 교회에서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quis in vocatione publica)은 흑사병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 없이 이들을 떠나거나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든 공적 권위 아래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언제나 마땅하다.⁶⁸ 하지만 그는 역병의 시기에 병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돌봄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사람에게 해를 발생하는 일 없이 병자에게 도움이 제공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⁶⁹

65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1.

66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0-21.

67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8-39.

68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9.

69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9.

물론 리벤투스는 이러한 의무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⁷⁰ “일반인”(privatos)은 “자신의 가정을 방치하지 않는 한” 감염된 사람들과 전염병이 유행하는 장소를 피함으로써 자신들을 돌보는 것이 허용된다.⁷¹ 리벤투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의 견해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퍼킨스는 십계명의 6계명을 주해하면서 정부 관료나 영혼을 돌보아야 할 목회자 같이 소명 받은 사람은 도피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그러한 소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도망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퍼킨스는 전쟁, 기근, 홍수, 화재와 삶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전염병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더구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전염병 전파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하는 것은 당연히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² 리벤투스는 또한 어떤 공적인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부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우르바누스 레기우스(Urbanus Rhegius, 1489-1541)의 견해도 소개한다.⁷³ 리벤투스는 로마 가톨릭에서도 다른 견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실례로 루드비히 바에르(Ludwig Baer, 1479-1554)의 주장을 인용한다.⁷⁴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리벤투스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다른 이들을 돕는] 자비로운 사랑(charitas)의 행동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각 개인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많고 다양한 기회들 속에서 사랑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소명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함에 있어

70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19.

71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2.

72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28-29.

73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32-33.

74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43-46.

우리는 잔기가 우리를 경고하는 두 가지 위험인 어리석은 대담함과 지나치게 악랄한 두려움을 멀리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와 다른 이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구하려는 욕망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일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것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에서 양재[다른] 이를 돕는 것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관심을 조절해야 합니다.⁷⁵

리벤투스는 전염병의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버리고 각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수행할 것을 권면한다.

한편 역병의 때에 도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른 17세기 개혁주의자들에게 의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도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전염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데 리벤투스와 동의한다. 하지만 공적 소명을 받은 목회자나 관료의 도피에 대한 견해는 리벤투스와 조금 다른 뉘앙스의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른베이크도 리벤투스와 유사하게 피신과 머무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소명”(vocatio, calling)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병사가 그들의 병영을 이탈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명”을 망각한 채 전염병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⁷⁶ 구체적으로, “혈연, 우정 또는 직무의 필요성”으로 묶여있고 자신의 지원이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남아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호른베이크는 그들에게 자신의 도움이 불필요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이미 남아도는 경우라면 피난을 떠나도 된다고

75 Rivetus, *de Pestis contagio & fuga*, 173-74.

76 Johannes Hoornbeeck, *Dissertatio de Peste Theologica in Variorum Tractatus Theologici de Peste* (Leiden: Johannes Elsevirius, 1655), 279-80.

가르친다.⁷⁷ 이러한 호른베이크의 주장은 목회자나 정부 관료도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줌으로써 이들의 도피 문제에 있어서 다소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리베투스과 같은 신학자들과 달리 좀 더 유연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⁷⁸ 반면 베자는 리베투스과 유사하게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구분 없이 피신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특히 국가 공동체의 유익과 임무를 우선시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맺어진 “관계의 끈”(bonds)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어졌는가?⁷⁹ 셋째,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각 개인은 윤리적 판단을 위한 실제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양심의 확신”에 따라 피신할 것인지 아니면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⁸⁰ 베자는 병이 발발한 지역을 떠나는 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순종과 불순종의 판단 근거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아닌가가 되어야 한다.⁸¹ 그런 점에서 베자는 공공의 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목회자는 흑사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하늘의 위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는” 성도를 버리고 도망하는 “사악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⁸²

4. 인간 죽음의 양태(樣態, modus)에 대한 리베투스의 사상

77 Hoornbeeck, *Dissertatio de Peste Theologica*, 281-82.

78 Cf. 권경철, “푸치우스의 ‘흑사병에 대한 영적 해독제,’” 82. Cf. Martin Luther,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in *Luther’s Works*, ed. Gustav K. Wiencke, trans. Carl J. Schindler (Philadelphia: Fortress, 1968), 43:121.

79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7-18. 베자는 흑사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족 공동체보다 국가 공동체의 이익과 임무를 우선시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7-18.

80 양신혜, 『베자: 교회를 위한 길 위에 서다』, 221. Cf.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7.

81 양신혜, 『베자: 교회를 위한 길 위에 서다』, 229. Cf.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3.

82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8.

요한 판 베베르바이크(Johan Van Beverwijck, 1594-1647)는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서 활동하던 개혁주의 의사였다. 그는 1630년대 도르트레흐트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흑사병을 퇴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판 베베르바이크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죽는 때는 불변하기 때문에 병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위생적으로는 매우 부주의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었다. 이에 문제의식은 느낀 판 베베르바이크는 의사와 신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 종말의 때가 이미 결정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의학적 치료가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며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때 판 베베르바이크는 리베투스에게도 의견을 구하였는데 특히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요청했다. 리베투스는 1634년 2월에 판 베베르바이크에게 답장을 보냈고 이는 같은 해에 판 베베르바이크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답변을 모아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편지형 질문, 그것은 필연적인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가? 학자들의 답변과 함께』(*Epistolica quaestio, de vitae termino, fatali, an mobili? Cum doctorum responsis*)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책에 수록이 되었다.⁸³ 리베투스가 자신의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인간 수명은 신의 섭리로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변경 가능한 것인가? 둘째, 인간의 종말과 관련된 신적 필연성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1) 인생의 마지막은 불변하게 정해진 것인가 변경 가능한 것인가?

리베투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파의 신학 전통에 근거해

⁸³ Johan van Beverwijck, *Epistolica quaestio, de vitae termino, fatali, an mobili? Cum doctorum responsis* (Dordrecht: H. Essaeus, 1634). 이 책은 수정 보완되어 1636년, 1639년, 1655년에 재출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리베투스의 답변이 바로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이다.

“인간이 죽는 시간”(termino vitae)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단언한다.⁸⁴ 그는 이 주장을 출애굽기 23장 26절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논박을 중심으로 여러 성경 구절에 호소함으로써 그리고 보에티우스(Boethius, c. 480-524)와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66-1308)과 같은 여러 교부와 중세 신학자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한다.

리베투스는 먼저 출애굽기 23장 26절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에 관한 해석을 논의한다. 그는 이 구절이 각 사람의 인생 길이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른 죽음을 경고하시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⁸⁵ 하지만 리베투스는 이 구절을 근거로 각 개인의 삶에 미리 정해진 종말의 때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가자의 프로코피우스(Procopius of Gaza, c. 465-528)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프로코피우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우리 삶의 기간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하나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이나 최악 된 행동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⁸⁶

그러나 리베투스는 인간이 죽는 때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프로코피우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실제로 이를 경험으로 증명하려면 삶의 종말이 인간의 “미덕”(virtute)에 달려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큰 미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삶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비록 실제로 하나님이 덕이 많은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부여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공평하게 정확한 비율로”(neque perpetuum est, neque ad æquam proportionem exactum)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사람들이 미덕의 정도에 따라 언제나 더 많이 살거나 높은 덕을 가진 사람만이 장수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⁸⁷

84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6.

85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6.

86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7.

87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8.

둘째, 인간의 삶이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각 개인에게 삶의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프로코피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 두 사실은 양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여도 양자는 “나눌 수 없는 연합에 의해서 조화롭게 연결되어”(indissolubili vinculo, cohaerent)있다.⁸⁸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확인된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및 13장 1절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예정된 죽음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으려 할 때마다 그 위험을 피하려고 했으며,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potestas tenebrarum)가 올 때까지 그들의 시도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⁸⁹ 따라서 리베투스는 인간이 죽는 시간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와 제이원인의 우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만약 제이원인의 결정이 있다면, 그것이 제이원인의 필연성이나 자유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날을 결정하는 분은 육체에 필요한 것이나 영적으로 앞서서 것들을 미리 준비하거나 자기의 지혜에 따라 허용하며, 자신의 자비와 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완성합니다.⁹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지하시지만, 인생의 기간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는 프로코피우스의 주장은 오류이다. 리베투스는 하나님이 예지한 것보다 생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리베투스는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 5장 6편에 나오는 보에티우스의 진술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지식은 “자신의 단순성에서”(ex propria Deus simplicitate)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예지는 장차 일어날 사건에 의해 어떤 귀납적 영향도 받지 않는 불변한 지식이라고 주장한다.⁹¹ 리베투스

88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8-89.

89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9.

90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89-90.

91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91-92.

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오류는 신지식을 신적인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modum)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는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⁹² 그는 또한 신적 예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하나님의 예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말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견해라고 비판한다. 리벤투스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스코투스의 주장을 의지한다. 스코투스에 따르면 미래의 우발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그의 의지에 근거한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적 결정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사실에 반대하여 어떤 사건의 ‘미래화’(futurition)가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다르게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⁹³ 리벤투스는 스코투스의 주장 외에도 성경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예지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변호한다. 잠언 3장 16절과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편 90편 3절, 사도행전 15장 18절 등의 성경 구절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영원부터 정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출애굽기 23장 26절의 해석에 대한 논박에 이어 리벤투스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각 개인의 생명 기한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영원 전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가령 시편 139편 16절은 인간의 출생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포함한 모든 날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다고 증언한다. 리벤투스는 외경의 내용도 다룬다. 죽음의 날과 시에 관해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암시하며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서 2장 2절은 창조, 보존 및 통치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모든 일을

92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92. Cf. 리벤투스는 하나님의 작정과 마찬가지로 신적 예지가 불변한 지식이라도 그것은 제이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고”(naturales) 어떤 것들은 “자유롭도록”(liberae) “고유의 양태를 확립한다”(proprium statuendum modum)라고 주장한다.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92.

93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92-93.

아우르는 섭리의 교리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⁹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출생, 성장,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인간 삶의 마지막이 우연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⁹⁵

또한, 리베투스는 인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여러 사상가의 견해를 소개한다.⁹⁶ 여기에는 개혁파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간지식 논쟁으로 유명한 기욤 지비외(Guillaume Gibieuf, 1583-1650) 같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30), 키프리아누스, 암부로스(Ambrose of Milan, c. 339-397),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 Of Alexandria, 376-444)과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장에 더욱 많이 의지한다.⁹⁷ 리베투스에 따르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그의 자비나 공의의 척도에 따라” 각 개인 생명의 마지막 시점을 결정했음을 분명하게 주장한다.⁹⁸

한편 인간 생의 마지막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예지가 하나님의 의지적 작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다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저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⁹⁹ 가령 영국 케임브리지의 개혁주의자인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1637-1716)는 하나님께서 우발적 사건을 포함하여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⁰⁰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발적인 사건을 미리 아시는 토대는 “오직

94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1-02.

95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2.

96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198-99.

97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15-22.

98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22.

99 Cf.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ed. Ernst Bizer, trans. G. T. Thoms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75-81.

100 John Edwards, *The Arminian Doctrines Condemn'd by the Holy Spirit, By Many of Ancient Fathers, By the Church of England, and even by the Suffrage of Right Reason* (London: 1711), 138-39.

어떤 것들을 가능성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확정하는 미래화의 상태로 옮겨 놓는 작정(decretum)”이라고 가르친다.¹⁰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말을 미리 아시지만, 인간 죽음의 때는 유동적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작정을 신적 예지의 근거로 삼는 개혁주의자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은 예지를 작정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미래의 우발적 사건을 하나님이 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회의 중간지식론 또한 강하게 비판한다.¹⁰²

(2)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신적 필연성의 성격

리베투스스는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견해를 밝힌 후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이 초래하는 신적 필연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논의한다. 그는 인간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을 많은 사람이 “절대적인”(absoluta) 필연성 또는 “운명론”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선(先)결정이 “자유롭고”(liberarum) “자연적인”(naturalium) 성격을 지닌 “제이원인”(causarum secundarum)의 본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¹⁰³ 리베투스스는 이러한 생각이 오해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목적에 관한 어떤 작정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관한 작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며, 결과에 관한 어떤 작정도 동일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원인들에 관한 그리고 자유롭든(libera) 필연적이든(necessaria) 그들의 작용 방식에 관한 작정으로 부터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원인을 배제하는

101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 『변증신학강요』 1권, 박문재 & 한병수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334 (III.XII.XVIII).

102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J. Martin Bac, *Perfect Will Theology: Divine Agency in Reformed Scholasticism as against Suárez, Episcopius, Descartes, and Spinoza* (Leiden: Brill, 2010), 71-210.

103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3.

절대적인 작정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이러한 원인들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이들 없이는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들을 포함합니다.¹⁰⁴

리베투스에 따르면 삶의 마침 또는 연장을 결정한 하나님의 뜻은 삶의 마침 또는 연장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도 결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이원인을 작성하실 때 각각의 제이원인에 자유를 부여하시며 자신들의 양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따라서 제이원인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 동시에 제이원인의 관점에서는 우발적이고 자유로운 사건이 된다. 결과적으로 리베투스는 개혁주의 섭리론은 운명론과는 다르며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절대 필연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것의 최고 통치자는 그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그 자체로는 불확실하고 정해지지 않은, 자유롭고 우발적인 원인을 가장 확실하고 무류(無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이원인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이들은 우발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발생할 때 다르게 발생할 수 있거나, 그것들이 발생할 때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하고 움직이게 하는 제이원인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그것들은 확실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성이 제이원인이 아닌 오직 제이원인에만 귀속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에 편견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이고 운명론적인 필연성은 절대적 거짓이라는 우리에게 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¹⁰⁵

리베투스는 제이원인을 통해 일하시는 신적 섭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음식과 약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같이 헛된 일이라고 주장한다.¹⁰⁶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4)의 『켈수스에 반대하여』(*Contra*

104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3; 204-05.

105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4.

106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5.

Celsum)의 2장 내용을 길게 인용한다. 인용된 부분은 병든 사람의 회복 여부는 미리 정해져 있기에 회복될 운명이라면 의사를 만나는 여부와 상관없이 회복될 것이지만 회복되지 않을 운명이라면 의사를 찾든 찾지 않든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회복을 위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헛되다는 운명론적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주장이 다음의 주장과 똑같은 논리라고 간주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녀를 가질 운명이라면, 그 사람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것이지만 그가 자녀를 가질 운명이 아니라면, 여성과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갖기 위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후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의사의 치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의사를 찾아야 하며, 따라서 의사를 찾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이다.¹⁰⁷

리베투스스는 오리게네스가 비록 결과가 미리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제이원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터무니없음을 탁월하게 증명했다고 칭찬한다. 리베투스스는 사라 역시 득남의 약속을 받은 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지만, 사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과 성교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따라서 중간 원인(*causas medias*)은 최종 목적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배열되고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원하시고 예지하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이원인을 제일원인에서 독립시키는 것으로 신의 지혜와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리 정해진 목적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107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5-06.

인정합니다. 이러한 수단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음식 섭취, 의사의 돌봄, 산업과 노동, 성도들의 기도 및 이에 기여 하는 모든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해진 생명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섭리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¹⁰⁸

결과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결정한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제일원인은 제이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치료나 약의 복용과 같은 수단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수단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¹⁰⁹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수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¹¹⁰ 리베투스스는 이러한 생각이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이 나의 날을 결정했지만 내 삶의 정확한 종점을 나에게 숨기고 이를 조사하거나 바빌로니아의 숫자 점(Babylonios numeros)치는 것을 금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섭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분은 정한 바에 따라 우리를 인도할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몸의 영양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이 문을 노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¹¹

더불어 리베투스스는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¹⁰⁸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7.

¹⁰⁹ 리베투스스는 글(편지)의 마지막에서 자신도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병든다면 이 글의 수신인인 베베르바이크와 같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24.

¹¹⁰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7-08.

¹¹¹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7-08.

의사의 치료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 섭리의 규칙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명체의 본능을 고려할 때에도 적절한 것이다.¹¹²

리벤투스는 이상과 같은 자신의 의견이 성경 및 건전한 이성과 부합한다고 확신한다. 특히 신적 필연성의 작용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 이해력의 한계와 불필요한 트집 잡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더라도 그는 이것이 명백한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리벤투스는 『견인의 은사에 관하여』(*De Dono Perseverantiae*)의 14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숨겨진 것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것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유명한 진술을 인용한다.¹¹³ 그는 이것이 마치 조류와 바람의 움직임 같이 자연 만물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¹¹⁴

마지막으로 리벤투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지로 생명의 마지막을 확실하게 보았고 모든 우발적인 사건들을 영원 전부터 미리 보았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두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비판한다. 먼저 그는 “그 자체로”(in se) 자유롭거나 우발적인 사건의 존재 또는 “조건적인 예지”(conditionatorum praescientia)를 인정하는 예수회의 중간지식론은 『신의 도성』(*De civitate Dei*)이 5권 9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박하는 내용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¹¹⁵ 다음으로 리벤투스는 신적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 소시니안주의자들(Socinians)은 신성모독적인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자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¹⁶

한편 제일원인으로써 우주를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의

112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14-15.

113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9.

114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09.

115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11.

116 Rivetus,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212.

시간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운명론과는 다르며 절대 필연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리베투스의 견해는 다른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사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가령 베베르바이크로부터 리베투스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푸치우스는 제일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연장과 죽음에 대한 불변한 결정을 내리시지만, 그 뜻은 인간의 우발적이고 자유로운 본성을 무시하는 “절대 필연성”(necessitas consequentis)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장하는 “결과의 필연성”(necessitas consequentiae)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종말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롭고 우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이다.¹¹⁷ 따라서 푸치우스는 인간이 죽는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선결정이 운명론처럼 제이원인의 우발성과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면한다.¹¹⁸ 잔키도 “제일원인”(causa prima)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초래하는 필연성은 인간을 강압하지 않고 “제이원인”(causa secunda)인 인간의 자유롭고 우발적인 본성을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필연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제일원인과 제이원인이라는 서로 다른 원인성의 관점에서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¹¹⁹ 요컨대 리베투스를 포함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제이원인의 우발성과 인간의 자유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신적 필연성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제이원인인 인간을 신적 필연성에서 독립된 존재로 여기는 양 극단적인 사상을 피하고 이들 사이에서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¹¹⁷ Gisbertus Voetius, “Dissertatio Epistolica, De Termino Vitae” in *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 Vol. V. (Utrecht, 1648-1669), 14; 128. Cf. Beza, *Treatise of the Plague*, 10-11.

¹¹⁸ Voetius, “De Termino Vitae,” 56.

¹¹⁹ Girolamo Zanchi, *Opera theologorum, tomus secundus* (Geneva: 1617-19), col. 449.

덧붙여, 인간 종말의 때가 불변한 것인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리베투스의 논의는 성경에 직접 호소하면서 동시에 스콜라주의적 개념에도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례로 이미 살펴보았듯이 리베투스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제일원인과 제이원인의 구분이나 우발성과 필연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 등은 스콜라주의의 논거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따라서 리베투스가 칼빈의 영향 속에 “신학이나 윤리에서 스콜라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칼빈의 흔적을 따라갔다.”라고 주장한 혼더스(Honders)의 주장은 적어도 전염병과 관련된 저술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¹²⁰ 리베투스는 혼더스가 주장한 것처럼 스콜라주의와 성경 중에서 성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스콜라주의 모두를 사용하여 자신의 논거를 펼쳐 나갔다.

III. 결론

전염병을 다루는 리베투스의 저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부와 중세 신학자 및 종교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리베투스는 전염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대응은 겸손과 회개라고 결론을 내리는 전통적 견해를 따른다. 하지만 이전 시대와는 달리 근대의학의 영향 속에서 전염병을 자연적인 원인을 가진 대상으로 파악하며 흑사병의 자연과학적 원인과 치유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리베투스의 전염병에 관한 저술은 개혁주의 신학이 당시 급속히 발전하고 있던 근대과학 및 의학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흑사병에 대한 전인적인 설명들과 실천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당시 유럽 지성사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

120 Honders, *Andreas Rivetus*, 145.

둘째,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논의에서 리베투스스는 공적 소명이 있는 위정자와 목회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역병의 극복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그의 신학이 단순한 사변에 머무르지 않고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노력하는 실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역병의 때에 공공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도피와 거리 두기를 긍정적으로 허용하며, 감염자들을 철저히 격리하고, 무분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흑사병을 확산시키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제재하며, 성찬과 같은 교회의 예식도 과감하게 폐지하려는 모습은 당시 개혁주의 신학이 공적 영역의 관심 속에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선을 구하며, 개인의 유익보다는 대사회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는 특성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간 종말의 때가 불변한 것인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리베투스스의 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인간의 자유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간 공로로 돌리는 펠라기우스파 사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제이원인의 우발성 및 인간의 자유 모두를 보장하는 중도적이고 균형 있는 신학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적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리베투스스의 개혁주의적 견해는 비록 건강의 회복과 생명의 보존 여부와 관련된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전염병의 극복을 위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이원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임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흑사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건강한 신학적 바탕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리베투스스의 전염병 사상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교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공적 의무를 방기하

였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교회 밖 세상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교회 밖의 담론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전염병 극복의 중심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염병 확산의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각인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난의 때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서 교회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협력하면서 사회를 선도하였고, 자연과학과 의학에도 열린 자세를 견지하며 세상과 소통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리베투스를 비롯한 여러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역사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Bèze, Théodore de. *De Peste. Ubi quaestiones duae explicatae, in Variorum tractatus theologicici de peste*. Leiden : Johannes Elsevirius, 1655.
- _____. *De pestis contagio et fuga, dissertatio. Accessit Andreae Riveti ejusdem argumenti epistola*. Offic. Elseviriorum, 1636.
- _____. *A Learned Treatise of the Plague: Wherein, the Two Questions: Whether the Plague to be infectious or no: and whether, and how farr it may be shunned of Christians, by going aside? are resolved*. London, 1665.
- Bullinger, Heinrich. *Bricht der Krancken. Wie man by den krancken und sterbenden menschen handeln...* in *Heinrich Bullinger Werke* 1. Zürich: 1972.
-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 Baum, E. Cunitz and E. Reuss. Brunswick: Schwetschke, 1863-1900.
- Edwards, John. *The Plague of the Heart, its nature and quality, original and causes, signs and symptoms, prevention and cure: with directions for our behaviour under the present judgement and plague of the Almighty*. Cambridge: 1665.
- Luther, Martin.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II*. Edited by Gustav K. Wiencke and Helmut T. Lehmann. Translated by Carl Schindler. Philadelphia: Fortress, 1968, 115-38.
- Philip Schaff and Henry Wace, eds.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2 series in 28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56.
- Rivertus, Andreas.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 Meditatio in Psal. XCI.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et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 ex Office J. Biesii typ., 1638*.
- Voetius, Gisbertus. *Selectae disputationes theologicae*. 5 vols. Utrecht,

1648-1669.

2차 문헌

- Scott Manetsch.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신호섭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 Alexander, Archibald. *Thoughts on Religious Experienc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7.
- Allgemeine Deutsche Biographie*. vol. 28. Leipzig: Duncker & Humblot, 1889.
- Duker, A. C. *Gisbertus Voetius*. 4 vols. Leiden: Brill, 1897-1915.
- Earngey, Mark. "Plagues and Protestants," *Churchman* 134/2 (2020), 107-123.
- Haag, Eugène and Emile. *La France Protestante*. vol. 8. Paris: Joël Cherbuliez, 1858.
- Honders, H. J. *Andreas Rivetus: Als Invloedrijk Gereformeerd Theoloog in Holland's Bloeitijd*. Leiden: Martinus Nijhoff, 1930.
- Klauber, Martin I. Ed. *The Theology of the French Reformed Churches: From Henri IV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4.
- van den Berg, J. *Biografisch Lexicon voor de geschiedenis van het Nederlandse Protestantisme*. vol. 2. Kampen: Kok, 1983.
- van den Brink, R. C. *Bakhuizen Overzicht van het Nederlandse Rijks-Archief*. The Hague, 1854.
- van Opstal, A. G. *André Rivet, een invloedrijk Hugenoet aan het hof van Frederik Hendrik*. Harderwijk: Drukkerij Flevo, 1938.
- 권경철. "푸치우스의 '흑사병에 대한 영적 해독제.'" 『역사신학논총』 제38권 (2021), 78-100.
- 양신혜. 『베자: 교회를 위해 길 위에 서다』. 서울: 익투스, 2020.
-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Abstract]

The Study of the Reformed Orthodoxy's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Plague in the 17th Century: The Analysis of Andreas Rivetus' *Antidotum Contra Pestem & malorum omnium* and *Epistolae duae, una, de Pestis contagio & fuga, altera, de termino vitae fatali an mobili*

Jeong Mo Yoo

(Torch Trinity Graduate Univesity, Associate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a 17th-century Reformed orthodox theologian, Andreas Rivetus'(1572-1651) view of plague presented in his writings. In a similar vein to church fathers, medieval theologians, and reformers, Rivetus argues that plague is a divine punishment for human sin and thus the solution of plague is humility and repentance before God. However, unlike previous eras, under the influence of modern natural science, he also perceives plague as a subject with natural causes and makes efforts to find scientific explanations and remedies for it. Concerning the issue of flight during the outbreak of plague, Rivetus claims that unlike ordinary Christian, rulers and pastors should remain in their positions and fulfill their public callings from God. Rivetus' discussions on whether the end of life is immutable or movable shows that, in opposition to Stoci fatalism which entirely denies human freedom or contingency and the Pelagian view which ascribes all to human merit, 17th century Reformed orthodox theology ensures both absolute divine sovereignty and freedom of human beings in a balanced way. Consequently, Rivetus' view of plague offers valuable historical

insights to the appropriate response of the church in the face of contemporary crises, such as the widespread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Key Words: Andreas Rivetus, Reformed orthodoxy, plague, flight, providence, medicine

